

서뷰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 회장



▶ 지난 11월 1일 전력기술진흥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5회였는데...

“전기기술인협회는 매년 11월 1일 전기인의 날을 기념해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3월에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전력기술진흥대회는 역대 행사 중 가장

전력산업을 책임지는 전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기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제15회 전력기술진흥대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력산업계 내·외빈들과 회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인들의 고마움을 새롭게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선복 회장에게 행사에 대한 평가와 전기기술인 관련 현안,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전력기술진흥대회’ 전기인 자긍심 고취 큰 역할

‘전기인 재난지원단 결의대회’ 함께 열려 의미 배가

많은 회원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전력기술진흥대회에서는 전기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에 봉사하는 전기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지는 전기인 재난지원단 결의대회를 겸해 전기인 스스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 부대행사인 제16회 전기인 한마음 대회를 행사 개최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 랜드마크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돼, 전기인의 축제로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됐다.”

▶ 이번 전력기술진흥대회에서는 특별하게 전기인 재난지원단 행사가 열렸다. 지원단의 설립 의의와 활동 목표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회원 및 전기인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 3월 선거공약에서 광역단위 재난지원단을 편

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18만여 명의 우수한 전기기술자를 보유한 국내 유일 단체로 전기인으로서 성실의무와 재능기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전기인 스스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지난 6월부터 단원 모집을 실시한 결과 4500여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9월 협회 전기기술교육관에서 전기인 재난지원단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고, 이번 전력기술진흥대회에서 단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 전기재해는 물론 지진이나 풍·수해 등 천재지변과 각종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복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소에는 광역단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전기

인으로서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 최근 발전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발전특위의 역할과 계획은 무엇인가.

“전기관련 법·제도 정비와 남북교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협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서로 주어진 업무는 다룰 수 있지만, 전기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업역 간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를 모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갈 협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했다. 협회의 근간인 전기안전관리분야와 전기설계·감리분야를 주축으로 두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협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업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업계의 현안 및 장기적 과제 등을 논의해 협회 현안사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취임 후 조직 구성의 부분이 변화했다고 알고 있다. 중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협회의 중앙회는 경영·회원관리부서가 근무하고 있는 회관과, 교육·연구부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관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 근무장소가 다르다 보니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다소 미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경영관리 분야와 교육연구

구 분야의 본부장 제도를 도입해 본부장 책임하에 본부별 지휘계통을 명확히 하고, 두 본부 간의 협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직제와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두 본부장을 중심으로 경영관리본부에서는 각종 민원업무, 예산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교육연구본부에서는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과 연구용역 수주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상근임원이 새로이 선임됨에 따라 내실을 다지고 100만 전기인을 대표하는 협회로 발전할 인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근부회장과 두 본부장을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새로운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직원들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전력기술진흥대회를 빛내주신 회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행사의 품격을 위해 직접 참석해주신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과 최재성 국회의원님, 정우택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전기관련 기관·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협회를 만들고 전력기술 향상을 선도하며 전기인들의 권익향상에 앞장서는 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승교 기자 kimsk@

신임 국표원장에 이승우 전 산업부 정책관 선임

산업혁신성장실장에 유정열
에너지지원실장에 주영준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승우 전 산업부 시스템 산업정책관이 선임됐다.

또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에는 주영준 주중화 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선임됐다.

이승우 신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1968년생으로, 성균관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한 뒤 영국 서식스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안전정책국장,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으로 일했다.

주영준 신임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방산물자교육지원센터장, 에너지산업정책단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으로



이승우 원장



주영준 실장

로 활동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2일부로 산업혁신성장실장에 유정열 방위사업청 차장을 전보 발령했다.

또 ▲산업정책관에 박성택 ▲중견기업정책관에 조영신 ▲에너지산업정책관에 이용환 ▲무역정책관에 박대성 ▲제품안전정책국장에 박정욱 씨 등을 임명하는 국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정일 기자 yunji@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권구훈 골드만 이코노미스트 위촉

3개월여간 공석이었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가 위촉됐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권구훈 신임 위원장은) 2007년부터 골드만삭스에 재직 중인 거시경제 예측 분야에 손꼽히는 전문가”라며 “우크라이나 사무소, 모스크바 사무소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북방경제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



권구훈 위촉

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주제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북한 경제 전문가다.

국제통화기금 모스크바 사무소 상주대표와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뒤 골드만삭스에서 일해 왔다. 통일과 나눔 재단의 ‘통일나눔펀드’ 기금 운용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광국 기자 kimgg@

송철호 울산시장 스코틀랜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방문

영국, 독일 등을 방문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1일 영국 스코틀랜드 하이윈드(Hywind)를 비롯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 현장을 방문했다.

오전 10시 애버딘(Aberdeen)의 하이윈드 사무실에서 하이윈드 발전단지 준비와 건설 과정, 운영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이윈드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로 30MW 규모로 조성됐으며 약 2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오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EDP Renewable과 부유식 해상풍력 1기의 실증 현장을 방문했다.

윤재현 기자 mahler@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네 번째)이 1일(현지시간) 울산 부유식 해상발전단지 위원회 김연민 위원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시장(왼쪽 두 번째),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 등과 함께 영국 애버딘 피터헤드항 연안에 위치한 PPA사의 2MW급 반잠수식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시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지역경제총괄과장 이경호 ▲석유산업과장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용필 ▲동북아통상과장 박덕열 ▲신남방통상과장 배성준 ▲무역정책과장 박재영 ▲투자정책과장 김정화



코콤의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Smart Home IoT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홈 시스템에서 LED조명 시스템까지!

코콤은 1976년 설립 이래 자체 기술로 연구·개발한 디지털 영상기술과 네트워크 통신기술로 주택 및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왔으며, 현재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을 주축으로 홈오트메이션, 홈시큐리티 시스템에서 친환경·초절전 LED 조명산업까지!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

코콤은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디오폰, 로비폰, 경비실기, 차량출입통제, CCTV, 무인택배, 자동문, 비상방송, 중앙관제시스템 까지!

손끝에서 시작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라이프!



홈네트워크 시스템 | 홈오트메이션 | 비디오폰 | 인터폰 | 도어폰 | CCTV 시스템 | 디지털 도어록 | LED 조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 22 | 문의전화 : 02-6675-2223 | E-mail : kocom@kocom.co.kr

주식회사 코콤